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 대비 24.7% ↑

민주노총–한국노총,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 발표
“물가폭등 속 노동자 보호…최저임금 대폭 인상”
18일께 첫 전원회의 예상…사상 첫 1만원 ‘촉각’

노동계가 4일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많은 것이다. 노동계가 지난해 요구한 올해 최저임금(1만890원)과 비교해서도 1110원 많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양대노총은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5.0%)을 웃돌았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올해 1월 실질임금도 전년 대비 5.5% 하락하며 1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양대노총은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물가 폭등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확보를 위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통상 최임위 심의가 한창인 6월께 노동계 공동 요구안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충분히 알리고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요구안 발표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겼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지만,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임위는 오는 18일께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가 이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지만, 최임위에 공식 제출하는 최초안은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1만원까지는 380원이 남은 상태다. 인상률로는 3.95%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올해 또다시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 당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다만 현재 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여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양대노총은 이날 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답정너식’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식으로 공익위원안이 2년 연속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올바른 심의를 촉구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이슬 기자

세븐일레븐, MD 추천 와인 기획전

이탈리아 와인 5종 등 총 14종의 와인 및 샴페인 준비

세븐일레븐이 4월 MD 추천 와인 기획전으로 ‘711에서 보물찾기’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달 기획전에서는 와인의 정석으로 불리는 ‘신상 보물’ 이탈리아 와인 5종과 스테디셀러 ‘숨은 보물’ 9종을 더해 총 14종의 와인 및 샴페인을 준비했다.

이탈리아 와인 5종 중 하나는 ‘반피(BANFI)’의 레드와인 ‘반피 BDM’으로, 편의점 단독 판매한다.

BDM의 교과서로 불리는 이 와인은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반피의 시그니처 상품이다. 이탈리아 소믈리에 협회에서 선정한 최고 와이너리로 두 번이나 선정됐다.

국내 한정 수량 입고된 ‘레쿠폴레 2020’도 세븐일레븐에서 찾을 수 있다. 130년동안 4대째 가업을 이어받아온 피치니 가문의 ‘피치니 메모로’도 선보인다.

이밖에 ‘뽀므리 하트 에디션’을 비롯해 ‘덕혼 디코이’ 2종, 호주 프리미엄 와인 ‘다렌버그 데드암 쉬라즈’ 등 세븐일레븐 곳곳에 ‘숨은 보물’인 스테디 셀러 와인도 다시 한 번 만나볼 수 있다.

오유나 기자

오뚜기, 컵누들 ‘큰컵’ 드디어 나왔다

소컵보다 중량 1.6배 늘린 ‘컵누들 큰컵’ 출시

오뚜기가 기존 컵누들 소컵보다 중량을 1.6배 늘린 ‘컵누들 큰컵’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오뚜기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인 컵누들 큰컵은 그 간 SNS 등을 통해 컵누들을 더욱 많은 양으로 든든하게 즐기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수많은 요청에 따라 출시됐다”고 했다.

오뚜기는 컵누들 인기제품인 ‘매콤한맛’, ‘우동맛’을 기존 소컵 중량보다 1.6배 늘린 큰컵에 그대로 담아냈다.

기존 소컵 1개는 다소 부족하고 2개는 부담이 됐던 소비자가 식사 대용으로 가볍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컵누들 큰컵 라인업의 포문을 연 제품은 ‘매콤한맛’과 ‘우동맛’ 2종으로, ‘매콤한맛 큰컵’ 칼로리는 205kcal, ‘우동맛 큰컵’은 215kcal로 일반 용기면 대비 부담없는 칼로리로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오뚜기 컵누들 큰컵은 오는 13일 이마트와 SSG닷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5월부터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그 간 기존 컵누들 소컵으로는 양적으로 아쉬움을 느꼈던 많은 소비자를 위해 큰컵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컵누들 큰컵 라인업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고객 니즈를 만족시키겠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DL건설,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오는 31일 주택전시관 개관

전용면적 63~84㎡, 총 542가구 중 176가구 일반 분양
광주 최초 C2 HOUSE 적용된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
오는 10일 특별공급,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 접수

DL건설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143-36번지(장미구역 주택재건축) 일원에 위치한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의 주택전시관을 31일(금)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8개 동, 전용면적 63~84㎡, 총 5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일반 분양 가구 수는 전용면적 기준 △63㎡ 112가구 △84㎡ 64가구다.

■ 광주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교육의 메카, 광주 미래의 중심 봉선동 위치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는 광주 교육의 1번지인 봉선동에 위치한다. 봉선동은 다양한 학원들이 밀집해 있어 광주의 대치동으로도 불리는 곳이다. 단지는 봉선동 학원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도보권에 제석초가 위치해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주월중·봉선중·서광중·수피아여중 등 중학교도 인접해 있다.

단지는 미래 가치가 기대된다. 이 아파트는 약 21만㎡(부지 면적), 사업비 879억원이 투입된 도시재생 사업지구 백운광장(2023년 예정)이 가깝다.

이곳에는 광주 최초의 공중보행로와 스트리트 푸드존·스마트 주차장·마을역사박물관·수변 공간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이 일대에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2026년 개통 예정) 백운광장역과 봉선역도 들어설 예정으로 교통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는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하나로마트·봉선시장·이마트·남구청 등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또 광주기독병원·미래아동병원·한일병원·조선대병원·전남대병원 등의 의료시설이 인근에 있으며, 푸른길공원·봉선공원·광주사직공원 등 쾌적한 주거 환경도 누릴 수 있다.

■ 광주 최초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주거 플랫폼 C2 HOUSE 적용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에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과 상품, 디자인, 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새로운 주거 플랫폼 C2 HOUSE가 광주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C2 HOUSE는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설계돼 고객의 취향에 따라 자유로운 구조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가구 내부는 대부분이 남향 위주로 배치(일부 가구 제외)돼 채광이 우수하며, 판상형 3~4BAY와 2면 개방 탑상형 구조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팬트리·드레스룸·파우더룸 등 넉넉한 수납 공간도 장점이다.

단지는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구당 주차대수 1.3대를 확보했으며,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하여 풍부한 조경도 곳곳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계획돼 있다. 실내놀이터·프리미엄 독서실·라운지카페·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등의 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단지내 웨더스테이션·에어커튼 등이 제공되며, 세대내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주방 터치수전·온도 조절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도 적용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는 오는 4월 10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후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8일에 발표한다. 자세한 입주자모집공고 및 상품과 관련된 내용은 분양 홈페이지와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682-12번지(광주 1호선 공항역 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주는 2024년 10월로 예정됐다.

서선옥 기자

깨끗한나라, 물티슈 3종 리뉴얼…“연143톤 플라스틱 절감”

친환경성 강화한 물티슈 3종 출시

깨끗한나라가 친환경성을 강화한 '깨끗한나라 물티슈 3종'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리뉴얼한 신제품 3종은 52가지 먹는 물 수질검사를 통해 99.6%의 가장 깨끗한 물을 사용했다. 10단계 정밀 정수 과정을 거쳐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여과했다.

다양한 환경친화적 소재도 사용했다. 물티슈 캡은 환경보호를 위해 무라벨로 적용했다. 캡 중량도 낮춰 기존 캡 대비 8%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 캡의 50%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대폭 줄였다.

뉴시스